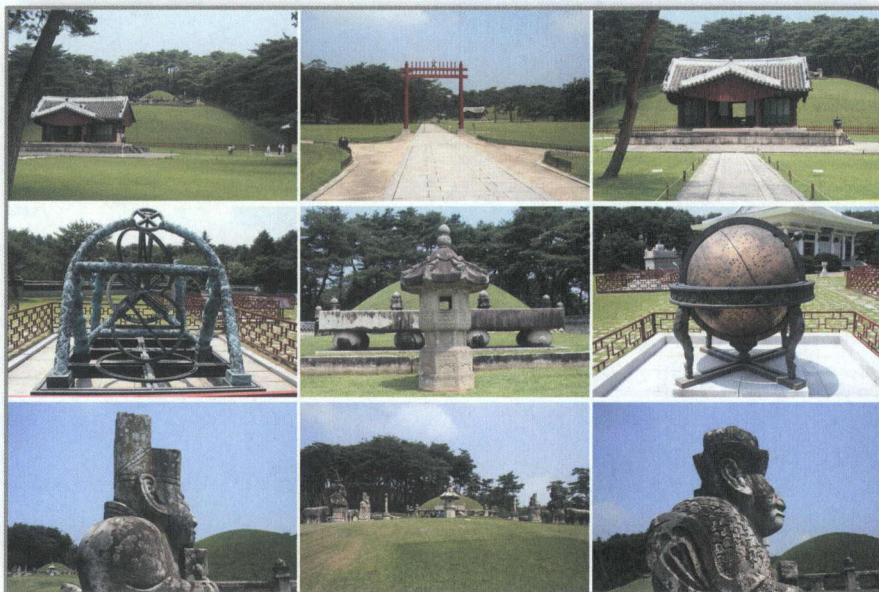


여주군



영릉(英陵)

1. 연혁

능 주 : 세종(世宗)과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

위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지정번호 : 사적 제19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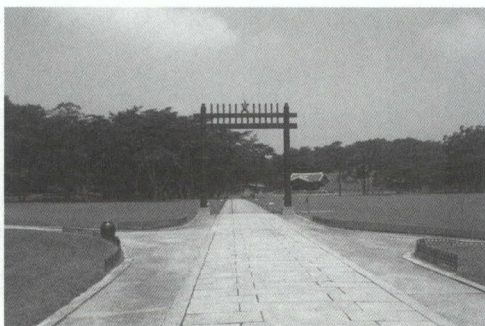
봉릉연대 : 1446년(세종 28)

전릉연대 : 1469년(예종 1)

왕릉형태 : 합장릉

2. 왕릉 소개

서울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남양주시 도농삼거리에 이르면 춘천으로 가는 46번 국도와 양평으로 가는 6번 국도의 갈림길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6번 국도를 타고 한강변을 따라 양평까지 달려가면 여주군으로 갈 수 있는 37번 국도와 만나게 된다. 다시 37번 국도를 타고 남한강을 따라 달려 나가면 여주군 초입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2007년 8월 개통된 세종대교에 올라타



영릉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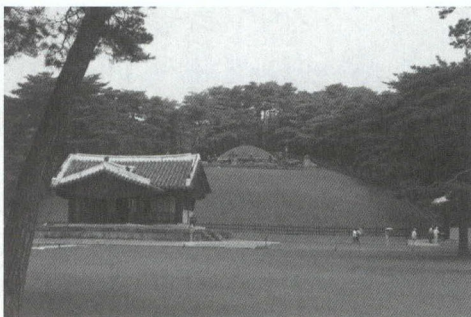
서 남한강을 건너면 바로 영·녕릉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의 관리면적은 65만 2000평이며, 해마다 양력 5월 15일에는 세종대왕 탄신 승모제전을 봉행하고 있다.

원래 영릉은 소헌왕후가 죽은 1446년(세종 28) 광주(廣州) 현릉 서쪽에 조성하여 그 우실(右室)을 왕의 수릉(壽陵)으로 삼았다가 1450년 왕이 죽자 합장했다. 이 능은 《국조오례의(國祖五禮儀)》 치장조(治葬條)를 따른 조선 전기 능제의 기본을 이루었다.

능의 석물(石物)은 병석(屏石)에서 영저(靈柩)·영탁(靈鐸)·지초문양(芝草紋樣)을 배제하고 구름문양과 12지신상만 조각해 조선병석문(朝鮮屏石紋)의 기본을 확정했으며, 혼유석(魂遊石)의 고석(鼓石)을 5개에서 4개로 줄이는 등 제도상 고친 것이 약간 있었다.

세조 때 이 영릉이 불길하다는 의논이 대두했으나 서거정(徐居正)이 “천장(遷葬)함은 복을 얻기 위함인데 왕자가 다시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라고 반대하여 옮기지 못하다가 1469년(예종 1) 여주로 옮기게 되었다. 이 능을 천장후 조선조가 100년 연장되었다는 가백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때는 세조의 유언으로 병석과 석실의 제도를 폐지하고 회격(灰隔)으로 합장했



영릉 근경



영릉 정자각

다. 능 앞에 혼유석 2좌를 놓아 양위(兩位)임을 표시했을 뿐 상설제도는 단릉(單陵)과 같다. 광릉(光陵)에는 동자석주(童子石柱)에 12지신상을 표시했는데 이보다 1년 후에 천릉한 영릉에서는 12지(支)를 문자로 기록했고, 그 이후에는 난간에 24방위까지

넣은 새로운 왕릉상설제도를 이루었다. 광주에 세워졌던 신도비(神道碑)는 능을 옮길 때 땅에 묻었던 것을 1974년에 발굴해 세종대왕기념관 앞뜰에 옮겨놓았다.

천하의 명당으로 알려진 영릉의 지세는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층층이 해와 달의 모습을 띠면서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형국이라 한다. 거기에다 정남향 이어서 “가히 만세에 나라를 이어갈 만한 기가 탄생할 자리”인데, 이를 모란반개형(牧丹半開形)이라 한다. 영릉의 정문으로 들어서면 재실과 세종대왕 동상이 오른쪽에 서 있고, 왼쪽에는 세종대왕기념관인 세종전이 있으며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성역화사업으로 주변정비를 실시하였다.

훈민문을 지나 너른 능역을 조금 걸으면 연못과 홍살문, 정자각이 차례로 다가선다. 언덕에 올라서면 석상, 석마, 문인석, 무인석을 앞에 둔 합장릉이 있다.

왕릉은 조선왕조의 능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능의 하나로



영릉의 봉분과 혼유석, 장명등



세종전 앞에 전시되어 있는
축우기

서 합장릉임을 알 수 있는 두 개의 혼유석이 있고 봉분 둘레에 돌난간을 돌렸으며 12개의 석주에는 12간지를 문자로 새겨놓았다. 능의 정중앙에 팔각의 장명등이 있으며 주위에 석호 · 석양 · 석마 · 문인석 · 무인석 · 망주석을 배치했고 능뒤에는 나즈막한 곡담을 돌렸다. 능밑에는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과 제사때 음식을 준비하던 수라간, 능을 지키는 관리가 살던 수복방이 있고 정자각 동편에 능비와 비을 세웠다. 정문을 들어서면 좌측에 해시계 자격루, 관천대, 측우기, 혼천의 등 각종 과학기구를 복원해 놓았으며 세종전에는 대왕의 입적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유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학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봉분>

원래 왕릉은 봉분(封墳) 하단에 병풍석(屏風石)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다시 난간석을 둘러 이중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영릉은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을 두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능이 예종 때 이 곳 여주로 이장되면서 예종의 부왕인 세조가 석실과 병풍석을 쓰지 말라는 유언을 따라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봉분 속에는 세종 대왕과 소헌 왕후가 잠들어 있다.

<수라간>

정자각 왼편에 위치해 있는 수라간(水刺間)은 제사나 왕의 친행(親行)이 있을 때 제물을 준비하던 곳으로 다른 능에서는 살피 볼 수 없다.

맨 왼쪽에는 작은 툇마루가 있는 방 하나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두 개의 미닫이 문이 있다.

<정자각>

능에 제사를 드리던 집으로 구조가 간결하고 색깔도 화려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대들보의 태극무늬는 하늘과 땅의 순환이치를 표현한 것이다.

<비각>

비각은 정자각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광주에서 여주로 능을 옮길 때 처음 만들어졌던 신도비(神道碑)는 그 자리에 묻혀졌는데, 현재는 발굴되어 청량리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에 보존되고 있다.

이 능에 있는 비석은 1745년 영조 21년에 세운 것이다.

<수복방>

수복(守僕)은 조선 시대에 능(陵), 단(壇), 묘(廟), 전(殿) 등에서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리고 제기를 보관하거나 능을 지키는 관리가 사용하던 방을 수복방이라고 한다.

<홍살문>

홍살문은 능의 정문격에 해당되는 곳으로 능역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본래 능(陵), 묘(廟), 궁전(宮殿), 관아(官衙) 등의 앞에 세운 붉은 칠의 나무 문으로 신성한 장소임을 상징한다.

형태는 2개의 둥근 기둥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운 가로대를 올려 놓았고, 그 중간에 태극 문양을 그려 넣었다.

<훈민문>

영릉 정문과 능의 중간에 위치한 문으로 1977년에 세워졌다.

<재실>

왕이 돌아가시면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탈상 때까지는 대군, 공주, 군, 옹주, 문무백관이 매년 제사에 참관하였는데, 이 때 제관들이 머물며 제사를 준비하던 집이다.

이 재실은 원래 영릉 안산(북성산) 동북쪽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후에 없어진 것을 1970년에 복원하였다.

<세종전>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립한 유물관으로 세종대왕의 어진과 대왕의 업적을 그림으로 그려 전시하였으며, 당시에 발명 사용한 과학기구, 악기류와 그 때 간행된 책들을 함께 진열하였다.

<세종대왕동상>

1971년 건립한 것이나 1977년 능역을 성역화하면서 새로 단장하였다. 우측에 능역정화비, 좌측에 훈민정음비가 흑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있다.(김세중 작)

3. 능주 소개

세종(1397[태조 6]~1450[세종 32])은 조선의 제4대 왕(재위기간, 1418~1450)으로 재위기간 동안 유교정치의 기틀을 확립하고, 공법(貢法)을 시행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해 조선왕조의 기반을 굳건히 했다. 또한 한글의 창제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문화의 융성에 이바지하고 과학



세종대왕 동상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는 한편,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토를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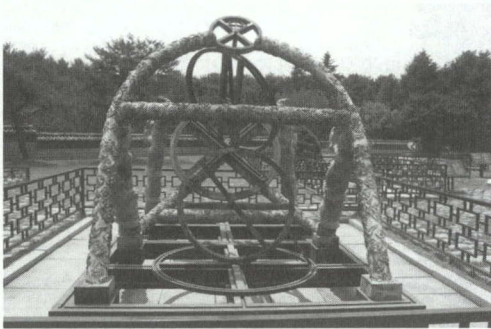
이름은 도, 자는 원정(元正)으로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이다. 비(妃)는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進封)되었다. 당시 왕세자는 형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이었으나, 태종은 충녕이 왕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1418년 6월 세자로 책봉했다. 같은해 8월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했다. 세종은 태종이 이룩한 왕권강화를 바탕으로 유교



세종전 앞에 전시되어 있는 호석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의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태종 때 실시된 6조직제(六曹直啓制)를 이어받아 국정을 직접 관장했다. 그후 왕권이 안정되자 6조직제제를 폐지하고 의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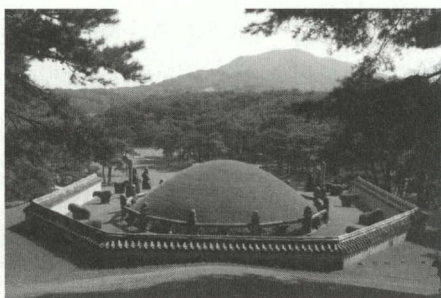
세종전 앞에 전시되어 있는 간의(簡儀)

서사제(議政府署事制)를 부활했다(1436). 이는 집현전에서 성장한 많은 학자들이 의정부의 지나친 권력행사를 견제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아울러 세종은 승정원(承政院)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적으로는 이를 통해 모든 정무를 통괄했다.

1420년 설치된 집현전(集賢殿)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왕과 세자에 대한 학문적인 자문·교육과 각종 학술연구·서적편찬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성삼문·박팽년·하위지·신숙주·정인지 등 집현전을 통해 배출된 학자들은 유교이념에 입각한 정치와 문화를 확립하는 데 주역이 되었다. 한편 세종은 태조 이래의 억불숭유정책을 계승해 이를 정치이념이나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의 측면에까지 확대했으며, 《효행록》·《삼강행실도》·《주자가례》를 간행·보급해 유교적인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유교적인 의례(儀禮)를 확립하기 위해 예조·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집현전에서 국가의 의례인 오례(五禮), 사서(士庶)의 관혼상제에 관한 사례(四禮) 등에 대한 중국의 옛 제도를 연구하게 해 이를 정리했다. 이와 함께 1419년 사사노비(寺社奴婢)의 정리를 시작으로, 1424년 오교(五敎: 慈恩敎·華嚴敎·始興敎·中道敎·南山宗)와 양종(兩宗: 曹溪宗·天台宗)을 선교(禪敎) 양종으로 정비해, 각각



세종전 앞에 전시되어 있는 현주일구(懸珠日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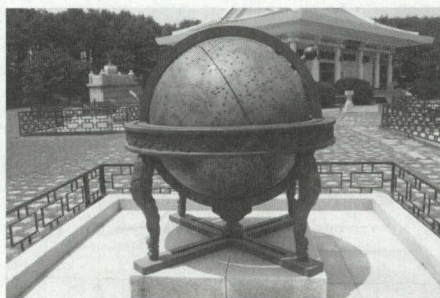
뒤에서 바라다 본 영릉

을 같이 하지 않았다. 특히 말년에 두 아들과 왕비를 잇달아 잃고 자신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유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불당(內佛堂)을 짓고 불경을 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가 승유정책(崇儒政策)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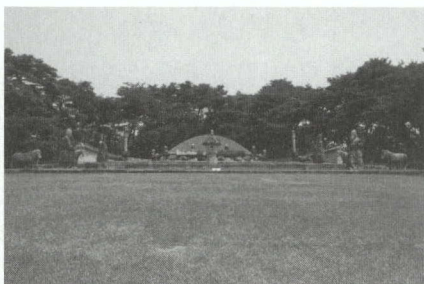
세종이 재위한 15세기 전반기는 유교를 치국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 즉 군현제(郡縣制)가 정비·확립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세종은 그의 치세 동안 태종이 이룩해 놓은 지방통치체제의 기반을 계승하면서 토호적 향리를 제거하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해 행정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령육기법(守令六期法)과 부민고소금지법(府民告訴禁止法)의 실시, 도와 군현 구획의 부분적 개편, 임내(任內)의 정비, 양계(兩界) 신설주진(新設州鎭)의 개척에 따른 구획과 사민입거(徙民入居) 및 유향소(留鄕所)의 복설, 경재소(京在所)의 효율적인 운용 등 지방통치면에서 획기적인 치적을 남겼다.

이와 더불어 관리의 등용·녹봉 체계를 고치고, 언로(言路)를 보장하

18개의 사찰만을 인정했다. 또한 이에 소속된 7,760결(結)의 토지 외에는 모두 몰수하는 등 불교를 억압했으나 왕실에서 개인적으로 불교를 믿거나 불교행사를 갖는 일은 가끔 있었으며, 세종도 유신들의 극단적인 불교전폐론(佛教全廢論)에는 뜻



세종전 앞에 전시되어 있는 혼상(渾象)



영릉 봉분 원경

는 등 관료제도를 정비했다. 관리등용제도로는 과거제도 이외에 취재제도(取才制度)를 실시해 지방의 수령(守令)·이서(吏胥)·문음(門蔭) 출신자 등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실직품관(實職品官)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종친·공로자·연로

자 등에게 관직 없이 관계(官階)만을 주는 산관제도(散官制度)와, 잡직관인(雜職官人)·품외관인(品外官人)에게 교대로 녹봉을 받게 하는 체아제도(遞兒制度)를 실시해 관직에 대한 과다수요를 조절했다. 이외에도 백관(百官)이 교대로 왕과 정사를 논의하게 하는 윤대법(輪對法)을 실시해 언론의 활성화를 꾀했다. 한편 법제적인 면에서는 1422년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속육전(續六典)》을 편찬하기 시작해 여러 차례의 개수(改修)를 거쳐 1435년에는 완성을 보았다. 또한 형벌제도를 개혁하여 가혹한 고문으로 피심문자(被審問者)가 죽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죽을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삼심(三審)을 받게 하는 삼복법(三覆法)을 시행했다. 1444년에는 노비를 노주(奴主)가 마음대로 벌주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자는 처벌하게 했다.

세종은 국가의 수입을 증대하고 민산(民産)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조세제도를 개혁했다. 태종 때 보급된 《농상집요(農桑輯要)》가 중국 화북지방의 농법을 다룬 것이어서 조선 농업의 중심지인 삼남지방의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정초(鄭招)에게 명하여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했다. 이는 삼남지방의 농업관행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려 한 것이었다. 《권농교문(勸農敎文)》에서는 목민관들에게 권

농의 이념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유의사항을 지시했다. 또한 세종대에는 농업 재생산력의 보존과 사회안정책의 일환으로 진흥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기도 했다. 한편 토지분급제도도 일대 개혁이 단행되어 1431년 새로운 급전법(級田法)인 4등순급법을 마련해 과전(科田)의 지급량을 축소하도록 했다. 또한 공신전(功臣田)의 지급을 대폭 감축하는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과전의 총량을 크게 줄이고 나머지는 국가기구로 돌려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취했다. 이는 곧이어 제정되는 공법의 정지작업이었으며 하삼도사전(下三道私田) 환급의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조세제도의 개혁에서 가장 큰 업적은 공법(貢法)의 제정이었다. 과전법(科田法) 체제에서의 조세규정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토지비옥도를 상세히 고려하지 않아 조세징수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실제 풍흉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답험손실(踏驗損失)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즉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공전(公田)에서는 수령이, 전주(田主)에게 조(租)를 납부하는 사전(私田)에서는 전주가 답험을 담당했으므로 이들의 농간에 따라 공평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세종은 1436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 1443년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세우고 이의 개선을 연구하게 했으며, 1444년 공법을 시행했으며 여기에서는 풍흉과 토지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각각 9등급과 6등급으로 나누어 세액의 차이를 두는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전분6등법(田分六等法)을 실시해 조세의 공평을 도모했다. 이때의 세율은 과전법에서의 1/10에서 1/20로 감소되었지만, 토지가 비옥한 삼남지방이 대부분 높은 등급으로 책정되었으므로 국고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농민의 경우는 결당(結當) 기준 세액이 300두(斗)에서 400두로 늘어나 세율의 인하만큼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전주나 관리의 자의적 중간수탈이 배제되어 그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세종의 대외정책은 태조 이래의 명에 대한 사대(事大)와 왜 · 여진 등에 대한 교린(交隣)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치적 · 경제적인 안정과 국력의 축적을 바탕으로 대명외교에서는 처녀진헌(處女進獻)과 금은조공(金銀朝貢)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하고 무리한 명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편 고려말 이래 골칫거리였던 여진과 왜에 대해서는 정벌을 단행했다. 여진에 대해서는 김종서 · 최윤덕(崔潤德)으로 하여금 두만강 · 압록강 유역의 여진을 몰아내게 하고 6진(六鎭) · 4군(四郡)을 설치, 이곳에 남쪽의 백성을 이주시켰다. 왜에 대해서도 1419년 이종무(李從茂)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했으나, 1423년 삼포(三浦)를 개항하면서 회유책도 병행했다. 그러나 왜인의 출입이 증가하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1443년 계해조약을 맺어 세견선(歲遣船)과 세사미(歲賜米)의 양을 각각 50척과 200섬으로 제한했다.

세종대에는 정치적 ·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문화가 크게 융성했다. 집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연구와 각종 편찬사업을 비롯하여 음악 · 미술 등 예술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훈민정음의 완성과 반포는 이 시기 문화유산의 결정이라 할 만하다. 1428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간행사업은 《고려사》 · 《고려사절요》 · 《자치통감훈의》 등의 역사서, 《사서언해》 · 《대학연의언해》 · 《효행록》 · 《삼강행실도》 · 《오례의주》 등 유교경전과 유교윤리에 관한 서적, 《명황계감(明皇誠鑑)》 · 《치평요람(治平要覽)》 등의 중국정치서, 《운회언역》 · 《용비어천가》 · 《동국정운》 등 훈민정음이나 음운 · 언해 관계 서적, 《팔도지리지》 · 《조선전도》 · 《세종실록》 지리지 등의 지리서, 《향약집성방》 · 《의방유취》 등의 의서, 《농사직설》 등의 농서를 비롯하여 중국법률 · 중국문학 · 천문 · 병서 등 다양한 범위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편찬사업은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유교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유교의례가 정리되면서 이에 필요한 음악이 크게 발달했다. 여러 악기를 조율할 수 있는 율관(律管)이 제작되고 음의 장단을 표시할 수 있는 정간악보(井間樂譜)가 만들어지는 등 음악학이 발달했고, 조회아악(朝會雅樂)·제례아악(祭禮雅樂) 등 아악이 정비되었다. 이러한 음악의 발달은 박연(朴堧)이라는 뛰어난 음악가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지만, 음악에 조예가 깊은 세종의 역할도 컸다. 1443년 완성되어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은 종래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기형적인 문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그 뒤에도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와 해설서, 한문서적의 언해서를 간행하고 활자를 목각하는 등 훈민정음의 보급을 위한 작업을 계속했다. 훈민정음의 반포는 일반 민(民)들에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보급시켜 유교윤리에 바탕을 둔 교화(教化)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밖에 춘추관·충주·전주·성주 등에 실록 보관을 위한 사고(史庫)를 설치했다.

세종대에는 과학기술도 크게 발달했다. 천문기상 부문에서는 1434년 천체관측시설인 간의대(簡儀臺)가 준공되었다. 이곳에 설치된 혼천의(渾天儀)·혼상(渾象)·규표(圭表) 등 천문관측기기는 송·원의 과학기술의 영향과 고려 때까지의 우리나라 천문과학의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가장 괄목할 만한 것으로 해시계·물시계·측우기의 발명을 들 수 있다. 해시계로는 정초·장영실(蔣英實) 등이 발명한 앙부일구(仰釜日晷)·현주일구(懸珠日晷)·전평일구(天平日晷)·정남일구(定南日晷) 등이 있었다. 물시계는 흐린 날이나 밤에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표준시계로 쓰였다. 1398년에 이미 경루(更漏)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가 있었지만, 세종대에는 장영실이 자동적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격루(自擊漏)와 옥루(玉漏) 등 더욱 발전한 물시계를 만들었다. 1441년 측우기의 발명은 빗물이 땅속에 스며드는 깊이

로 강우량을 측정하던 종래의 불완전한 방법을 개선해 과학적이고 수량적인 강우량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도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이라는 역서(曆書)를 편찬하고 발달한 중국·이슬람의 천문학과 역법의 계산방법을 흡수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독자적 역법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종대에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쇄술의 발달이다. 태종 때인 1403년 청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가 만들어졌으나 글자의 모양과 크기가 매끈하거나 고르지 못한 결점이 있었다. 즉위초부터 새로운 금속활자 인쇄기술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던 세종은 경자자(庚子字 : 1420)·갑인자(甲寅字 : 1434)·병진자(丙辰字 : 1436) 등을 주조하는 데 성공했다. 이 시기 활발한 간행사업의 수행은 이러한 인쇄기술의 발전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한편 1431, 1446년에는 도량형 제도가 확립되었다. 아악에 사용되는 황종관(黃鐘管)의 길이와 그 속에 담기는 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도량형 제도는 그뒤 《경국대전》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화포의 주조기술과 화약 제조기술도 단순한 중국기술의 모방에서 벗어나 크게 발전했다. 천자화포(天字火砲)·지자화포(地字火砲) 등 새로운 화포를 개발했으며, 《총통등록(銃筒謄錄)》을 편찬하여 화포의 주조법과 화약사용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정확한 규격을 그림으로 표시했다.

능은 영릉(英陵)이며, 시호는 장헌(莊憲)이다.

소현왕후(1395[태조 4]~1446[세종 28])는 조선 제4대왕 세종의 비로 성은 심씨(沈氏)이며,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문하시중 덕부(德符)의 손녀이고, 영의정 온(溫)의 딸이며, 어머니는 영돈녕부사 안천보(安天保)의 딸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 도와 가례(嘉禮)를 올려 빈(嬪)이 되고, 경숙옹주(敬淑翁主)에 봉해졌다.

1417년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개봉(改封)되고, 이듬해 4월 충녕대군이 왕세자에 책봉되자 경빈(敬嬪)에 봉해졌으며, 같은해 9월에 내선(內禪)을 받아 즉위하니 12월에 왕후로 봉하여 공비(恭妃)라 일컬었다.

그러나 1432년(세종 14)에 중궁(中宮)에게 미칭(美稱)을 올리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라 하여 1432년에 왕비로 개봉되었다.

심온은 세종이 즉위한 뒤 영의정에 올라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서 귀환하던 중 아우 청이 군국대사를 상왕(上王:태종)이 처리한다고 불평한 일로 대역(大逆)의 옥사(獄事)가 일어나 그 수괴로 지목되어 수원으로 폄출되어 사사되었다. 이 일로 폐비의 논의가 있었으나, 내조의 공이 인정되어 일죽되었다.

1446년에 52세로 죽자 헌릉(獻陵)에 장사지냈다. 뒤에 세종의 능인 영릉(英陵)으로 이장하였다. 《영릉지(英陵誌)》를 예조판서 정인지(鄭麟趾)가 저술하였다. 휘호는 선인제성(宣仁齊聖), 시호는 소헌(昭憲)이다.

4. 세종대왕영릉신도비문

世宗大王英陵神道碑

英陵神道碑銘 并序

堯舍丹朱而禪舜 舜有重華之德 而堯之仁 益以遠 文王舍伯邑考而立武王 武王有丕承之烈 而周之業 益以昌 孔子曰 唐虞禪 夏后殷周繼 其義一也 一者 謂皆無私心也 我太宗之禪位也 其堯文之心乎 我世宗之受禪也 其舜武之德乎 太宗之在位也 早建元子禔 爲世子 擇賢師友 以盡教養之方 世子有童心 學不就 德不進 太宗深以爲憂 永樂戊戌六月 世子失德滋甚 太宗欲立嫡孫爲

嗣 大臣等進曰 殿下教養世子 無所不至 尙且如此 今立幼孫 寧能保異日之賢乎 況廢父立子 於義如何 莫若擇賢爲嗣 時世宗 以世子母弟 次居第三 會封忠寧大君 太宗曰 忠寧最賢諸子中 宜立之 乃立爲世子 宗親文武百官拜賀 中外洽然稱頌 遂以奏聞天子 勅曰 立嫡以長 今古不易之常道 然嗣子之賢不肖 國之盛衰存亡係焉 王爲國家長久之慮 鑑盛衰存亡之機 欲立賢爲嗣 聽王擇焉 是年八月 太宗禪位于世宗 遣使請命 十一月 世宗奉 寶 上太宗奠號聖德神功上王 明年己亥春正月 天子遣鴻臚寺丞劉泉 封世宗爲王 六月 天子勅太宗曰 比以第三子 孝弟力學 可以繼承宗祀 且自陣年老 請襲以位 朕惟王識見明達 特允所請 夫繼世在於有後而傳序在於得人 今王簡賢命德 俾宗祀有托 以副國人之所望 良用嘉悅 賜王宴享 不惟王一家之慶 且爲王一國人之慶也 又勅世宗 勸勉以忠孝之道 仍賜宴享 八月使到國 兩聖受宴于景福宮之勤政殿 禮樂之盛 聳動一國 初元敬王后 以洪武丁丑四月十四日壬辰 生世宗於漢陽潛邸 四歲而王后夢 太宗抱世宗 坐於日輪中 未幾 太宗登寶位 而世宗又承大統 天之命有德 豈偶然哉 世宗自在閣 天性好學 手不釋卷 沉默寡言 有穆穆之容 又即大位 聰明睿智 則首出庶物之聖 寬裕溫柔 則容民畜衆之德 制物獨運 而有發強剛毅之執可畏可象而有齊莊中正之敬 精義入神 而有文理密察之別 每日四鼓求衣 平明受朝 次視事 次引輪對 次御經筵 乃入內 猶覽書史 無少懈 於是 政無不舉 事無不治矣 太宗既傳位 自念付托得人 樂山水之趣 屢出遊郊牧以自怡 閑謂近臣曰 得明主 委國政 無憂者 天下無如我也 豈惟天下無如我者 古今亦無如我也 蓋其憂之也深 故其喜之也如此 冬十月 盡革中外寺社奴婢 皆歸于官 尋罷五教 止留禪教兩宗 於是 異端之教 闕之廓如也 歲庚子春 始置集賢殿 選聚文學之士 備顧問也 是夏 元敬王后薨 避忌于外 掖輦徒步 至有露宿 奉藥常不離側 七月 王后薨 水漿不進 太宗強之 乃小進 辛丑八月 天子北征 進馬萬匹 天子褒美 賜以銀幣 九月 上太宗太上王

之號 壬寅五月 太宗薨 致喪三年 服衰行事 定爲永世之法 甲辰秋 太宗文皇帝崩 仁宗昭皇帝登極 奉表進慰 稱賀盡禮 天子喜獎忠懇 賜以彩幣 歲乙巳 仁宗崩 宣宗章皇帝御極 又遣使慰賀 宣德丙午春 天子稱嘆至誠 賜幣 以及王妃 是年冬 又賜五經四書性理大全通鑑綱目等書籍 自是賞賚 無歲不到 至解所御寶裝條環及刀劍以賜之 己酉夏 幸成均館 謁先聖取士 國人 常患金銀非土產而朝廷歲貢難繼 乃遣親弟恭寧君裊 具由陳請 天子特許免進 代以土物效誠 賞賜裊甚厚 是年冬 天子勅曰 朝廷所遣人等 至王國中王但以禮待之 毋贈遺以物 王父子 敬事朝廷 多歷年所 愈久愈篤 朕所深知 非左右近習所能聞也 又勅曰王可謂卓然賢王者矣 先是 婆猪江等處野人 與他部落連結 其所擄掠遼東開原邊境軍民逃至我國者 五百餘名 悉皆解送京師 野人懷憤 犯我北邊 癸丑春 命判中樞院事崔潤德 中樞院使李順蒙等 往伐之 其酋李滿住等 鳥竄獸奔 覆其巢穴而還 甲寅春 又謁先聖 取士 三月丙午 謁獻陵 甘露降于松柏 又降于景福宮後園松樹 百官請陳賀 不受 咸吉道北門沿江州郡 本高麗舊疆 我祖宗興王之地也 而爲野人所據 始置會寧鍾城穩城慶源慶興等諸鎮 盡復其舊 乙卯春 宣宗崩 今太上皇帝踐阼 奉表陳慰 天子遣使 賜錦段 正統戊午八月 又賜遠遊冠服 壬戌五月 達達使人賚書 至我北門 招諭邊將 語之曰 天無二日 民無二王 今大明統一天下 汝何發不道之言 遂拒不納 世宗馳奏京師 天子嘉悅賞賜 甲子春 勅曰 所諭邊事 悉能遵奉 罔有違怠 王其賢哉 特賜袞龍袍以寵異之 對馬一岐等島賊倭 侵竊上國沿海之地 又犯我濟州之境 邊將擒捕未盡 有稍稍逃竄本島者 世宗使人諭島主捕送 島主俯伏奉命 悉索執送 歸之于京師 以即天誅 前後凡六十餘名 天子深嘉之 勅曰 王克體爾先王敬天事大之心 秉恭摯誠 久而彌篤 肆朝廷眷待益隆 可謂君臣一心 終始靡間者矣 茲復械送犯邊賊倭 足見王體國安民之意 亦以見守邊得人 而有禦暴之功 又曰 朝廷嘉善重賢 禮遇優加 所謂德厚者寵榮 王其有焉 東良北住兀良哈浪

甫也隱豆 會弑父者也 是年來朝 世宗以爲大逆之人 天地所不容 王法所不赦 東良北 密邇我境 久霑王化 不可不誅 令有司 輟於境上 下教諭野人 野人等皆震懼 乙丑 以憂勤得疾 命今上殿下 叅決庶務 丙寅 創制訓民正音 以盡聲韻之變 蕃漢諸音 譯無不通 其制作精微可謂超出古今矣 戊辰 封元孫弘曄 爲王世孫 己巳秋 今上皇帝 臨御天下 奉表陳賀 又進馬以助邊備 帝遣翰林侍講倪謙刑科給事中司馬恂 賜以幣帛 我國 自太祖高皇帝賜以九章冕服 秩視親王 惟王世子 未有冕服 國人咸以爲慊 世宗奏請七章冕服 竟蒙俞音 世宗至孝 日朝壽康宮 愉色婉容之愛 執玉奉盈之敬 前世帝王之莫及 其遇喪祭 盡禮極誠 咸中法度 妃嬪以下 恩待各盡其分 無有間言 教諸子以義方 嫡庶尊卑 儀章恩數 粲然有等 皆好學達理 終無驕惰奢華之習 每朝夕定省 珠璧相聯 鴈行而入 國人咸嘆其有螽斯麟趾之慶 初太宗 放梃于外 然世宗 召見無時 卒使還京 親愛無嫌 群臣堅執不可 不聽 事二兄 待諸弟 盡其友于之情 宗室諸親 亦數會見 置酒以成歡洽 有服之親皆隨材授職 疏遠在野閑居者 亦復戶蠲稅 以存恤之 至於外戚 待之亦得其宜 又置宗學 太祖之孫 凡尸宗籍者 皆令受學 教養之道 至矣 禮遇群臣 嘉善而矜不能 無受刑戮者 如宦寺之輩 莊以莅之不任事權 事大之禮 出於至誠 凡所進獻文書方物 莫不親自監檢 所以列聖寵眷錫予之隆 褒美之辭 前昔無比 倭邦獻琛 野人執贄 自南自北 絡繹不絕 尊親感戴 出於心服 立銓注黜陟之法 至精至備 僥倖屏迹 賢良進用矣 守令拜辭 引見面諭 恤民之政 人人自勵矣 致意農桑 作書勸諭 省耕觀稼 人樂趨本矣 革損實之幣 定爲貢法 分地六等 分年九等 以上下其稅 復三代貢徹之遺法 命有司 鑄鍾造磬 吹律協音 而雅樂一新 會禮始不用女樂 又述祖宗功德 作定大業與民樂等 樂極其聲容之美 作唐俗樂譜 以均慢數之調 則人人接譜 不煩師學 而諸樂 各得其正 亦前昔之所未有也 參酌古今 定五禮儀 盡其情文之備 始設養老宴禮 男則親臨 女則王妃親饗 在州郡者 守令親饗 百歲以上者 月致

酒肉 八十以上者 賜爵有差 於是 恩無不及矣 遇災畏天 救荒恤民 盡心盡力 則皆以實而不以文矣 修七政內外篇 作諸儀像圭表及欽敬報漏等閣 而渾象 星晷定時儀仰釜儀漢陽日出入分 皆自創制 於是 天文曆數 始無差失焉 撰三 綱行實 則礪風俗也 作明皇戒鑑 則防逸樂也 修通鑑訓義治平要覽 則監興亡 也 集歷代兵要 則不忘戰也 以至醫藥諸書 亦皆校正如新鑄字記里鼓之類 又 無所不致其意也 作陳說 閱習陳法 益修戰艦 增制火桶 城廓修甲兵鍊而武備 嚴 法律明讞獄平而刑罰清 戒酒恤刑 皆下教書 戒飭官吏 當是時 雖百工技藝 咸精其能 上林園官 請備花器 教曰 予性不喜花卉 有司當務實 桑楮果木 皆 切於日用 汝等 自今以後 以此爲職 可也 嘗謂大臣曰 歷觀往昔 太平之世 尚 有牽裾切諫者 今雖小康 未及於古 未見有見有敢言者 何也 常開懷求諫 務使 盡言 言雖不中 未嘗罪之 事無大小 必與大臣謀而後行 故無有過拳 景泰元年 庚午 春二月 不豫 醫盡其術 禱徧于神 終未効 十七日壬辰 薨于別宮 春秋五 十四 在位三十三年 臣民沐浴恩澤 咸謂 大德必得其壽 永享萬年 而奄棄萬姓 嗚呼慟哉 大小臣僚 以至輿臺僕隸莫不失聲號哭 今上殿下 奉遺命 即位于梓 宮之前 諒闇盡禮 率群臣 奉冊寶 上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之號 廟號世宗 夏 六月十二日甲申 合葬于英陵之西室 亦遺命也 訃聞 天子慟悼 遣使賜祭 又賜 誥命 謚以莊憲 賜我殿下賻特厚 仍襲封王爵 錫以袞冕九章 王妃冠服 其賜我 殿下誥命 略曰 故朝鮮國王李某 慈惠謙恭 聰明特達 樂善循理 纖毫能謹 敬 天事上 終始一誠 仁厚孚於國人 功烈著乎邊境 自朝鮮有國以來 罕有如王者 也 爾李某 乃其世子 忠孝有誠 敬慎不懈 以長以賢 宜膺傳襲 惟忠惟孝 以永 率乃父之行 蓋我世宗盛德 光于四海 升聞于天 故終始哀榮之典 如此之至 嗚 呼盛哉 王后姓沈氏 青松世家 皇會祖諱龍 高麗贈門下侍中清華府院君 皇祖 諱德符 事高麗恭愍王再爲門下侍中 至我恭靖王朝 爲門下左政丞 封青城伯 皇考諱溫 領議政府事 封青川府院君 皇妃安氏 封三韓國大夫人 領敦寧府事

天保之女 后生而淑媛 太宗妙選來嬪 封敬淑翁主 敬事兩宮 篤承恩眷 世宗封王世子 后封爲敬嬪 世宗卽王位 后封爲恭妃 宣德壬子歲 從禮官言 去美稱 改封王妃 后有幽閑貞靜之德 世宗在潛邸 后之進退 世宗必起立 深加敬禮 接嬪媵 下至侍妾 皆有恩 視庶出子 皆如己出 撫愛有加 御膳進 則必親臨省視 以盡誠敬 有進戒之助 無私謁之行 壺儀克正 化流邦國 遠追太妣之風 正統丙寅春 邁疾 世宗日夜臨視 我殿下侍側 奉湯藥 三月二十四日辛卯 薨 享年五十二 諡昭憲 七月十九日乙酉 安厝于英陵東室 后誕八男二女 長卽今上殿下 次世祖 封首陽大君 次瑫安平大君 次璆臨瀛大君 次璵廣平大君 先卒 次瑜錦城大君 次琳平原大君 亦先卒 次琰永膺大君 女長未笄而卒 贈貞昭公主 次貞懿公主 下嫁延昌尉安孟聃 慎嬪金氏 生六男 長璿桂陽君 次玼義昌君 次琛密城君 次璉翼峴君 次璋寧海君 次璵潭陽君 在服中而卒 惠嬪楊氏 生三男 長ㄱ(玉+於)封漢南君 次玆壽春君 次璵永禮君 淑媛李氏 生一女 貞安翁主 未笄尚寢宋氏 生一女 貞顯翁主 下嫁鈴川尉尹師路 宮人姜氏 生一男 璵和義君 我殿下顯德王后權氏 贈領議政府左議政專之女 誕一男一女而薨 男弘曄 今封王世子 女敬惠公主 下嫁寧陽尉鄭悰 司則楊氏 生一女 幼 首陽娶贈左議政尹璠之女 生二男一女 長德宗桃源君 餘幼 側室朴氏 生一男 幼 安平娶贈左議政鄭淵之女 生二男 長友直宜春君 次友諒德陽正 臨瀛娶右議政崔承寧之女 生二男二女 長澍鳥山君 餘皆幼 廣平娶僉知中樞院事申自守之女 生一男 溥永順君 錦城娶贈左議政崔士康之女 生一男 幼 平原娶贈左議政洪利用之女 無子 永膺娶贈左議政鄭忠敬之女 和義娶承政院同副承旨朴仲孫之女 側室金氏 生一男 幼 桂陽娶判中樞院事韓確之女 生一男 幼 義昌娶副知通禮門事金修之女 生一男 幼 漢南娶戶曹正郎權格之女 生一男 幼 密城娶仁順府少尹閔承序之女 生一男 壽春娶副知通禮門事鄭自濟之女 生一男 翼峴娶禮賓少尹趙鐵山之女 永豐娶司憲執義朴彭年之女 寧海娶贈左贊成申允童之女

貞懿公主 生四男二女 女長適敦寧府丞鄭光祖 餘皆幼 貞顯翁主 生二男 皆幼 宜春娶右議政南智之女 臣竊惟化工之妙 著於物 聖人之心 著於政 惟我世宗 以生知之聖 建中建極 爲人倫之至 善繼善述 闡帝王之孝 九族既睦 萬姓咸和 庶務畢諧 聲名洋溢 天子褒其忠賢 錫予實繁 隣邦服其誠信 梯航相繼 臣侍從十年 出入政府六曹二十餘年 親近耿光 信乎致廣大而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 實東方之堯舜云 昭憲王后 以坤厚之德 配乾剛之聖 母儀一國 化彼四方 且有多男之慶 生我殿下 有聖德以承大統 又致魚貫之寵 有螽斯之多 信乎天作之合 而與周之太姒 匹休云 臣筆力蕪拙 不能稱頌盛美 不幾於書天地之大譽 日月之明者乎 然承命不敢辭 謹拜手稽首而獻 銘曰 舜承帝堯 重華允協 武繼文王 克昌大業 德盛而帝 功高而王 煥乎有章 載錫耿光 與賢與子 天實命之 或禪或繼 惟公匪私 惟我世宗 天縱生知 孝弟之性 忠信之資 好學不倦 周情孔思 明明太宗 惟幾惟深 廢昏命德 堯文之心 敷奏天庭 帝降俞音 旋倦于勤 乃禪以位 天子錫命 皇華聿至 天子錫宴 周行是示 道積厥躬 聰明睿智 宵衣旰食 勵精圖理 克承負荷 父王以喜 奉歡兩宮 愉色婉容 問寢龍樓 益虔益恭 喪盡其哀 祭盡其誠 天降甘露 式昭厥靈 在宮離離 罔有徧恩 家法克正 人無間言 伯兄居外 來見源源 既而召還 敬愛彌敦 因心則友 斯翕弟昆 其湛曰樂 華萼相輝 以及九族 恩澤覃施 振振子孫 詵詵螽斯 教以義方 讀書誦詩 儀章有等 嫡庶咸宜 禮遇群臣 刑戮不加 至誠事大 天子褒嘉 何錫予之 條環寶刀 又何予之 袞龍之袍 以禮交隣 隣邦輯和 梯航執贄 萬里一家 民既富庶 仁義漸摩 止仁止孝 止敬止信 建中致和 人倫堯舜 銓注法精 僥倖屏迹 任賢使能 各當其職 田制既定 猾吏手縮 不桀不狃 征歛無忒 首作儀像 次定律曆 五禮損益 情文之極 新樂聲容 祖宗功德 會用雅樂 始斥女樂 親臨養老 秋以爲式 撰集書史 監觀得失 訓民正音 一洗陋俗 貢許土宜 天子有勅 世子七章 光生一國 凡所施爲 無非燕翼 建鎮朔方 舊疆是復 威德遠被 無思不復 偏師指

北戎醜喙息 直搗巢穴 彼自顛覆 尺書下南 倭奴面縛 歸之京師 俾就顯戮 安不忘危 治不忘亂 城堡據險 戈予乃鍛 戰艦新造 堅如鐵石 火桶發機 疾若霹靂 軍資器械 遠邁前昔 好生之心 益致欽恤 刑罰平允 人無負屈 百工技藝 咸底于則 不喜玩好 務從質實 愈執謙遜 求言如渴 巍巍之德 郁郁之文 難名之盛 莫大之勳 虞周與儔 漢唐無聞 卅三年間 爲父爲君 昊天不吊 奄棄臣民 遠邇纏悲 哀慕如親 我王嗣位 至孝由性 明以繼明 聖以繼聖 山陵喪制 悉遵遺命 天子致弔 賜祭誅行 節惠定名 美諡以贈 厚賻亦至 恤典斯飭 俾襲王爵 錫之冕服 賚及王妃 珠冠祿翟 天子之恩 實優實渥 恭惟王后 倪天之妹 來嬪王家 正位乎內 大妣之德 文王之配 篤生聖主 鴻基益競 即有多男 麟兮播詠 實我東方 億載之慶 於戲先王 嘆興亡鑑 星未五周 忽遺弓劍 因山爲陵 同宮異室 仰思日角 五內痛裂 惟此盛德 萬代如一 謹撰梗槩 拜獻銘詞 天長地久 焜燿無期

5. 영릉표석음기

朝鮮國

世宗大王英陵

昭憲王后祔左

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洪武三十年丁丑四月十日誕生 永樂十六年戊戌受禪景泰元年庚午二月十七日昇遐 六月葬于廣州獻陵西岡 成化五年己丑三月六日移葬于驪州西北城山子坐之原 在位三十二年 壽五十四 皇朝賜諡莊憲妃宣仁齊聖昭憲王后沈氏洪武二十八年乙亥九月誕生 永樂十六年戊戌冊封敬嬪 尋進封恭妃 宣德七年壬子改封王妃 正統十一年丙寅三月二

十四日昇遐 七月葬于獻陵西岡 己丑三月六日移葬與大王陵同原 壽五十二
崇禎紀元後一百十八年乙丑立

6. 영릉지

《世宗實錄》卷 112, 世宗 28年 6月 6日 壬寅 昭憲王后英陵誌文

禮曹判書鄭麟趾製英陵誌以進 其文曰謹按王后姓沈氏 青松世家 皇曾祖諱龍 高麗贈門下侍中青華府院君 皇祖諱德符 相高麗恭愍王 再爲門下侍中 至我恭靖王朝 以議政府左政丞 封青城伯 皇考諱溫 皇妣安氏 封三韓國大夫人 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諡昭懿公天保之女 以洪武乙亥九月己未 生王后于楊州之私第 王后生而淑婉 維德之行 我殿下之出閣也 太宗大王妙選令族以求配 永樂戊子之歲 王后將笄 以德以容 乃得來嬪 封敬淑翁主 敬事兩宮 篤承眷愛 宜家之日 正位于內 日慈日儉 致肅雍之美 后之進退 殿下必起立 其見敬禮如此 丁酉秋九月 改封三韓國大夫人 戊戌夏 文武百官上書言 儲宮不德 請擇賢以建世子 太宗大王從之 且奏于太宗文皇帝 冊殿下爲王世子 封王后爲敬嬪 是年秋九月 殿下受太宗內禪卽位 十二月 封后爲恭妃 歲辛丑秋九月 太宗文皇帝遣使特賜段絹 自是洪熙宣德之間 錦段紗羅之賜累至 歲壬子正月 有司言 中宮有美稱 非古也 五月 改封王妃 后慈良聖善 出於天性 正位中宮之後 益自謙謹 禮接嬪媵 下及宮人 無不撫愛加恩 後宮有進見者 必加慰納 若所寵引者 特贈隆遇 至情無間 所生諸子 皆令養之 後宮亦盡心奉育 過於已出 又委之以事 任之不疑 後宮亦披誠奉順 無敢懈怠 由是嬪媵以下 愛敬如待父母 視庶出之子 皆如所生 御膳進則必躬自省視 務盡誠敬 母儀二十九年之間

有儆戒之助 無宴安之私 一不爲親戚求恩 又絕不與外事 雖宮中日用纖細事 必上聞 無敢擅爲 壺儀克正 化流于外 教誨多男 必以義方 乃有麟趾螽斯之慶 蓋天生聖人 必作賢匹 以成至治 周之太姒 播詠風雅 焜耀千古 今我殿下 既以至德至治 追踵文王 而王后又有如是之德之行 允爲天作之合 而文王后妃 不獨專美於前矣 正統丙寅三月初十日 王后感疾 殿下日夜臨視 東宮以下侍側 親奉湯藥 凡醫療禱祀 無所不用其極 是月二十四日辛卯 薨于別宮 春秋五十二 內而宮妾 外而大小臣僚 以至僕隸 莫不痛哭 天胡厚是懿德 獨不壽考而至於斯歟 嗚呼痛哉 殿下悲其早失良佐 不勝哀悼 以白衣素膳 終三十日 降冊諡曰昭憲王后 治英陵于獻陵之西崗 同宮異室 安厝于東室 禮也 王后誕八男二女 元子曰[文宗御諱]冊封王世子 次曰[世祖御諱]封首陽大君 次曰瑋 封安平大君 次曰璆 封臨瀛大君 次曰璵 封廣平大君 先二年卒 次曰瑜 封錦城大君 次曰琳 封平原大君 先一年卒 次曰琰 封永興大君 女長貞昭公主 早卒 次貞懿公主 下嫁光德大夫安孟聃 王世子嬪權氏 贈議政府左議政專之女 生元孫及平昌郡主而早卒 司則楊氏生一女 宮人張氏生一男 鄭氏生一男 皆幼 首陽娶中樞院使尹璠之女 生一男二女 男曰崇封桃原君 女皆幼 安平娶贈議政府左議政鄭淵之女 生二男一女 長曰友直 封宜春君 餘皆幼 臨瀛娶贈議政府右議政崔承寧之女 生三男一女 長曰澍 封烏山君 餘皆幼 廣平娶中軍護軍申自守之女 生一男 幼 錦城娶贈議政府左議政崔士康之女 平原娶贈議政府左議政洪利用之女 無子 永興娶司宰副正宋復元之女 貞懿公主生四男二女 皆幼

李承召,《三灘集》卷 14,墓誌 世宗莊憲大王遷陵誌石文

恭惟我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太宗恭定大王第三子也 元敬王

后閔氏 以大明洪武三十年丁丑四月初十日壬辰 誕于漢陽邸 自幼聰明絕倫 兩宮奇愛之 長封忠寧大君 性好學 雖在疾病 猶不釋卷 世子禔多失德 永樂十六年戊戌夏 群臣請廢立 太宗以王有潛德 且奏于太宗文皇帝 冊爲世子 秋八月 太宗倦勤 禪位于王 遣使請命 明年己亥春正月 帝遣使錫命爲王 繼遣使賜宴 又賜太宗宴 敕曰 王能簡賢命德 俾宗祀有托 不唯王一家之慶 且爲王一國之人慶也 歲庚子 元敬王后不豫 避忌于外第 王步行扶輦 至有露宿之時 及薨 哀毀踰禮 是年 設集賢殿 博選儒雅 置二十員以備顧問 壬寅夏五月 太宗薨 致喪三年 宣德元年丙午 宣宗皇帝賜綵幣書籍 自是寵賚頻繁 史不絕書 丁未秋 始置宗學 悉令宗室子弟受學 其諸子未就外傳者 亦教以義方 嫡庶之間 禮嚴恩篤 人無間言 戊申冬 制朝會樂 始於大會 不用女樂 我國歲貢金銀 然非土宜 常患不給 乃遣親弟表請朝議難之 帝曰 朝鮮王必不欺 豈可強人所無哉 午免貢 婆猪江野人數犯邊 癸丑四月 命將討之 斥地置慶興等鎮 自麗季 咸吉道沿邊之地 爲野人所據 至是盡復舊疆 甲子 對馬一歧島倭入寇上國 又侵軼我濟州之境 王使人諭島主 主承命 執送賊倭六十二人 於是械獻京師 帝賜綵幣嘉獎 夫以倭奴之頑悍 屈於折札 野人之桀驁 燬於偏師 非恩信素孚而威靈遠讐 則何以得此哉 初世子禔避謗在外二十年 召還京 群臣切諫皆不納 事二兄友諸弟 極其敬愛 以至九族之親 亦皆敦睦 王英睿冠古 輔以聖學 自卽位以來 宵旰求治 禮樂刑政 制度文爲凡先世所未遑者 皆舉而力行 酌古今文質之中 修五禮儀注 述祖宗功德之盛 作定大業等樂 創制訓民正音 以二十八字 盡通天下言語 文字紐切之妙 人所叵測 損益累朝憲章 以成經濟六典 規模宏遠 條貫詳密 可爲萬世法程 尤洞曉天文律曆 修七政算內外篇 作諸儀象 所以授人時也 取資治通鑑諸家註釋 讎校纂輯 名曰訓義 又撰三綱行實 治平要覽等諸書 所以隆文教厚人倫也 哀矜庶獄 則有恤

刑之教 慮民淫僻 則作戒酒之書 虛懷受諫 尊賢禮士 終王之世 大臣無有遭刑戮者 尤重親民之職 朝臣未經守令者 不敢陞授顯秩 三十年間 吏稱其職 民安其業 朝廷清明 四方晏如 號爲東方堯舜云 妃昭憲王后沈氏 青松世家 皇曾祖諱龍 高麗贈門下侍中 青華府院君 祖諱德符 相高麗恭愍王 再爲門下侍中 逮我恭靖王朝 爲議政府左政丞 封青城伯 皇考諱溫 某官 皇妣安氏 領敦寧府事諡昭懿公天保之女 封三韓國大夫人 以洪武乙亥九月己未 生王后于楊州私第 少有聰慧貞淑之德 永樂戊子歲 后將笄 以選嬪于王 封敬淑翁主 敬事兩宮 篤承眷愛 后之進退 王必起立 其見敬禮如此 丁酉秋九月 改封三韓國大夫人 王之封世子也 進封敬嬪 及卽位 封恭妃 壬子正月 有司言中宮有美稱非古也 改封王妃 后正位中宮之後 益自謙謹 禮接嬪媵 甚得歡心 後宮有進御者 必加慰納 所生諸子 養之宮中 盡心撫育 同於己出 御膳進則必躬自省視 宮中之事 無敢專制 大小皆稟於上 亦未嘗爲親戚子弟求官與婚 儉以律身 慈以逮下 雞鳴進戒 述宣陰教 配德並明 母儀一國 於戲 世宗有文王之聖 王后石有大姒之賢 故以能致關雎之化 螽斯之慶 本支百世 祚流無極 正統十一年丙寅春三月二十四日辛卯 以疾薨于外第 春秋五十二 王悼失良佐 以白衣素膳終三十日 夏六月 降冊諡昭憲王后 越五年庚午春二月十七日壬辰 王亦以疾薨于別宮 春秋五十四 在位三十三年 文宗率群臣上諡曰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廟號世宗 又表請易名 帝遣使致祭 賜諡莊憲 初 合葬于獻陵之西岡 以今上殿下卽位之元年己丑春三月初六日庚寅 移葬于呂興府治之北城山南向之原 實成化五年也 后誕八男二女 長文宗恭順大王 景泰三年壬申五月十四日薨 次世祖惠莊大王 成化四年九月初八日薨 次瑢 歲癸酉 謀不軌賜死 次璆 臨瀛大君 先遷陵二月卒 次瑱 廣平大君 次瑜 亦謀不軌賜死 次琳 平原大君 與瑱皆先卒 次琰 永膺大君 先遷陵二年卒 女長未笄而卒 贈貞

昭公主 次貞懿公主 下嫁延昌尉安孟明 慎嬪金氏生六男 長璿 桂陽君 次玗 義昌君 次琛 密城君 次璉 翼峴君 次璋 寧海君 次璫 潭陽君 遷陵之年 唯密城在 餘皆先卒 惠嬪楊氏生三男 長여(玉+於) 次玆 壽春君 早卒 次璫 與여(玉+於)以瑤黨貶死于外 淑婉李氏生一女 貞安翁主 適儀賓沈安義 尙寢宋氏生一女 貞顯翁主 適鈴川尉尹師路 宮人姜氏生一男璵 亦以瑤黨貶死于外 文宗顯德王后權氏 贈議政府左議政專之女 誕一男一女 男卽魯山君 女敬惠公主 下嫁鄭悰 司則楊氏生一女 敬淑翁主 適儀賓姜子順 世祖慈聖王妣尹氏 贈議政府左議政璠之女 誕二男一女 男長懿敬世子 早卒 次卽今上殿下 女懿淑公主 下嫁儀賓鄭顯祖 某官朴氏生二男 長曙 德原君 次晟 昌原君 瑤娶贈左議政鄭淵之女 生二男 長友直 次友諒 皆連坐死 臨瀛娶右議政崔承寧之女 生五男二女 男長澍 烏山君 次浚 龜城君 次淳 定陽君 次淨 八溪君 次澄 權城君 女長中牟縣主 適兵曹參判居昌君慎承善 次清河縣主 適司禦正安友騫 側室生四男六女 男長涵 英陽副正 次潏 丹溪副正 次濯 輪山副正 次沃 玉川副正 女皆幼 廣平娶某官申自守之女 生一男 溥 永順君 瑜娶贈左議政崔士康之女 生一男 平原娶贈左議政洪利用之女 無子 永膺娶某官宋福元之女 生一女 側室生一男一女 皆幼 璵娶密山君朴仲孫之女 無子 側室生一男 桂陽娶左議政韓確之女 生七男三女 男長澧 寧原君 次灏 江陽君 次湜 富林都正 餘幼 女長適某官安繼宋 餘幼 側室生一男一女 男幼 女適某官鄭從善 義昌娶某官金脩之女 生一男二女 男灝 蛇山君 女長適參奉辛禹鼎 次幼 여(玉+於)娶戶曹正郎權格之女 無子 密城娶軍器副正閔承寧之女 生四男二女 男長誠 雲山君 次諱 春城君 次상(言+賞) 遂安都正 次諱 石陽都正 女長適某官某 次幼 壽春娶全州府尹鄭自濟之女 生一女 適某官沈順老 翼峴娶某官趙鐵山之女 生一男一女 男漬 槐山君 女幼 璫娶朴彭年之女 寧海娶某官

申允童之女 生一男一女 皆幼 貞懿公主生四男二女 男長安如獺 僉知事
次溫泉 副正 次桑雞 典籤 次貧世 參判 貞顯翁主生二男 長尹礪 僉知事
次磷 護軍 貞安翁主生一男一女 男幼 女適某官崔孟思

영릉(寧陵)

1. 연혁

능 주 : 효종(孝宗)과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

위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지정번호 : 사적 제19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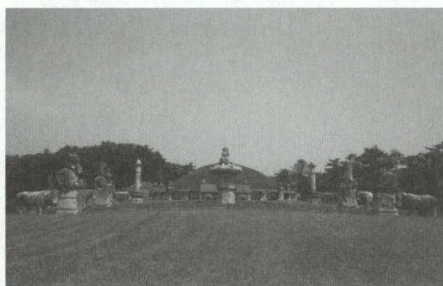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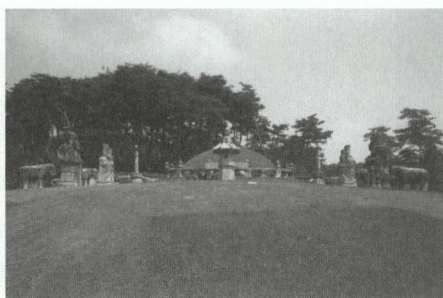
봉릉연대 : 1659년(현종 1)

전릉연대 : 1673년(현종 14)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서울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남양주시 도농삼거리에 이르면 춘천으로 가는 46번 국도와 양평으로 가는 6번 국도의 갈림길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6번 국도를 타고 한강변을 따라 양평까지 달려가면 여주군으로 갈 수 있는 37번 국도와 만나게 된다. 다시 37번 국도를 타고 남한강을 따라 달려 나가면 여주군 초입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2007년 8월 개통된 세종대교에 올라타



영릉 봉분 근경. 효종릉(위), 인선왕후릉(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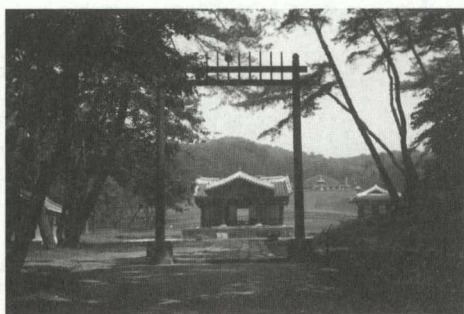
서 남한강을 건너면 바로 영·녕릉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

영릉은 조선 제17대 효종(1619~1659)과 인선왕후 장씨(1618~1674)가 모셔진 쌍릉이다. 효종릉 역시 능역과 푸른 소나무들이 주변에 울창하여 그윽함을 풍기지만 세종릉에 비하면 찾는 이가 적어 사방이 사뭇 조용하고 호젓하다. 능을 감싸며 유창하게 흘러내려온 묘내수는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를 빠져 나와 참도 가운데 금천교가 놓인 것이 주변의 경관과 어울려 이채롭고 절묘

하다.

영릉(寧陵)은 원래는 경기도 양주군(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건원릉 서쪽에 봉안하고 익릉(翼陵)이라 하였으나, 현종 14년(1673)에 현 위치로 옮겨왔고, 1674년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왕릉 앞에 왕비릉을 쌍릉 형식으로 조성하였다.

영능 입구에 들어가면 숲속 나무사이로 남향으로 지은 재실로 이어지는 곧은 길이 나오면서 사방이 조용하다. 재실은 관리사무소로 쓰이는 다른 왕릉의 경우와 달리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다. 재실 앞 숲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잔디가 깔려 있고 홍살문까지의 길도 잘 정리되어 있다. 잘 흐르도록 돌로 만든 수로를 타고 묘내수가 능을 감싸며, 유장하게 흘러 내려와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 참도 중간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금천교가 특이하게 홍살



영릉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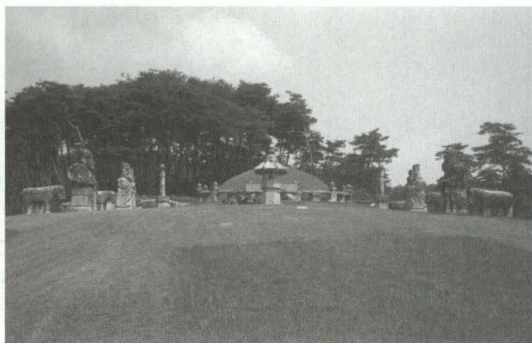
문과 정자각 사이 참도 가운데에 있게 된 것은 이곳의 산과 계곡이 자아내는 산수의 조화가 절묘하여 그런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정자각 뒤의 두 봉분을 자세히 바라보면 정자각 가까이 바로 우측에 보이는 왕비릉은 곡장이 없고 그 뒤 왕릉에는 곡장이 있다. 쌍릉이면

서도 서로 좌우로 이웃한 다른 능과 달리 한 언덕위에 앞뒤로 엇비스듬하게 위치를 달리하고 있다.

영릉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내력이 있다. 원래 효종의 능은 건원릉 서쪽 산줄기(운릉자리)에 병풍석을 갖춘 왕릉으로 조성되었다. 그 후 15년 뒤인 1673년(현종14)에 석물에 틈이 생겨 빗물이 스며들 염려가 있다 하여 천릉 계획을 짜고 여주 영릉곶에 천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릉을 열고 보니 깨끗하여 의론이 분분했고 이것이 당론으로까지 번져 시끄럽게 되어 전일 영릉도감의 책임자들이 면직되었다. 현재의 자리로 천장한 다음해 왕비 인선왕후의 능이 동원에 택정되어, 왕릉 앞에 비릉을 써서 현재와 같이 앞뒤로 나란히 쌍릉을 이루게 되었다 한다.

영릉이 자좌 오향(정북에서 정남방향)의 언덕에 앞뒤로 놓여 쌍릉을 이룬 것은 풍수지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릉을 좌우로 나란히 놓을 경우 생기가 왕성한 정형을 비켜야 하기 때문에 양릉 모두 정형에 두고자 한 데서 연유한다. 효종릉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멀리 왕비릉의 뒷모습과 그 너머 정자각의 뒷모습이 오른쪽에 보인다. 그리고 보면 이 왕과 왕비릉이 있는 언덕은 유난히 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왕과 왕비릉 중간을 인공적인 공

사로 이은 것이 아니면서 길게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뻗어 있는 지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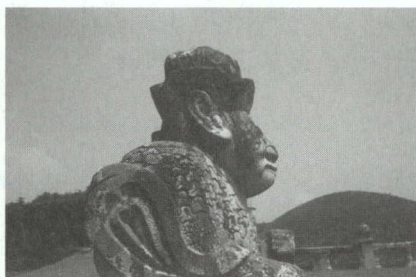
영릉 봉분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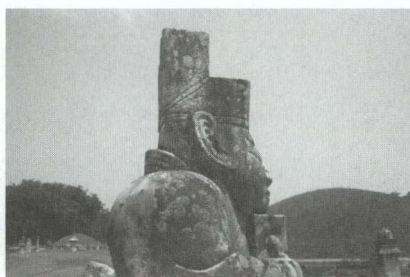
영릉 장명등

이런 곳에는 보통 북상이라는 개념으로 부부의 묘와 조상의 묘를 북상하여 차례로 배치했다. 영릉은 이러한 북상의 개념으로 왕을 위로 모시고 왕비를 아래로 모셨던 것이다. 이 위치가 바뀌면 이를 도장이라 하여 아주 좋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역적이 나면 삼족을 멸한 후 그 조상의 묘를 그같이 옮겼다고 한다. 효종의 능에만 3면의 곡장이 있어 쌍릉임을 나타내고 있을뿐 두 능의 상설제도는 같다.

상석을 받치고 있는 고석에 새겨진 귀면에 검고 푸른 이끼가 드리워져 있



영릉 무인석



영릉 문인석

다. 사악함을 내쫓는다는 뜻으로 새겨넣은 귀면은 험상궂은 얼굴과 검고 푸른색의 이끼가 어울려 더욱 무시무시하게 보인다. 십이지신상을 새긴 병풍석이 세조의 광릉 이후 없어졌다가 한동안 부활하여 쓰였는데 여기에 와서 다시 폐지되어 없다. 그래서 다시 난간석을 받치고 있는 동자석주에 글씨로 새겨 바위 위에 표시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광중에는 석실을 쓰지 않고 회격으로 하여 그 바닥에 처음으로 지회를 사용하여 조선능제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각 능의 봉분 앞에는 망주석 1쌍, 문, 무인석 각 1쌍, 석양과 석호 각 2쌍, 석마 2쌍, 능 아래는 수라청, 망료위, 표석등이 배치되어 있다.

재실(齋室)은 제관(祭官)의 휴식, 제수(祭需) 장만, 제기(祭器) 보관 등의 제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능의 부속건물이다.

영릉재실(寧陵齋室)은 1659년 경기도 양주군(현 경기도 구리시)에 익릉 조성 시 능의 인근에 건립되었으나, 1673년 영릉을 천릉하면서 현 위치로 이 건하였다.

건물들은 전반적으로 외벌대 장대석기단, 방형초석, 각주, 민도리 홀처마 집으로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세부수법에 있어서는 짜임새 있게 건립되었고, 안향청, 제기고, 재방, 전사청, 행랑채(대문 포함), 우물 등의 시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경내의 재향과 관계있는 향나무와 느티나무, 회양목(천연기념물 제495호) 등의 고목과도 함께 어울려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선 왕릉의 재실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이후 대부분 멸실되어 그 일부만 존치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영릉 재실은 조선시대 왕릉 재실의 기본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다.

3. 능주 소개

효종은 조선 제17대왕으로 이름은 호(溍), 자는 정연(靜淵), 호는 죽오(竹梧)이다. 인조의 둘째아들로 어머니는 인열왕후(仁烈王后)이며, 비는 우의정 장유(張維)의 딸 인선왕후(仁宣王后)이다.

1619년 5월 22일 서울 경행방(慶幸坊) 향교동(鄕校洞)에서 태어났고, 1631년 12세에 장씨와 혼인하였으며, 1626년(인조 4) 봉림대군(鳳林大君)에 봉하여졌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의 명으로 아우 인평대군(麟坪大君)과 함께 비빈·종실 및 남녀 양반 등을 이끌고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나 이듬해 강화가 성립되자, 형 소현세자(昭顯世子) 및 척화신(斥和臣) 등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 청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형과 같이 지내면서 형을 적극 보호하였다.

청나라가 산해관(山海關)을 공격할 때 세자의 동행을 강요하자 이를 극력 반대하고 자기를 대신 가게 해달라고 고집하여 동행을 막았으며, 그뒤 서역(西域) 등을 공격할 때 세자와 동행하여 그를 보호하였다.

청나라에서 많은 고생을 겪다가 8년 만인 1645년 2월에 소현세자가 먼저 돌아왔고, 그는 그대로 청나라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해 4월 세자가 갑자기 죽자 5월에 돌아와서 9월 27일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1649년 인조가 죽자 창덕궁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하였다.

효종은 오랫동안 청나라에 머무르면서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서쪽으로는 몽고, 남쪽으로는 산해관, 금주위 송산보(錦州衛松山堡)까지 나아가 명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고, 동쪽으로는 철령위(鐵嶺衛)·개원위(開元衛) 등으로 끌려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청나라에 원한을

품은 데다가 조정의 배청(排淸) 분위기와 함께 북벌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와 연결된 김자점(金自點) 등의 친청파(親淸派)를 파직시키고 김상헌(金尙憲)·김집(金集)·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 대청(對淸) 강경파를 중용하여 은밀히 북벌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김자점 일파와 반역적 역관배(譯官輩)인 정명수(鄭命壽)·이형장(李馨長) 등이 청나라와 은밀히 연결되어 있어 이들의 밀고로 청나라에 알려졌다. 그 결과 즉위초에는 왜정(倭情)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남방지역에만 소극적인 군비를 펼 뿐 적극적인 군사계획을 펼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하여 강경책을 펴던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多爾袞)이 죽자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태도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1651년(효종 2) 12월 이른바 조귀인(趙貴人:인조의 후궁)의 옥사를 계기로 김자점 등의 친청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고, 청나라에 있던 역관배들도 실세(失勢)함으로써 이듬해부터 이완(李浣)·유혁연(柳赫然)·원두표(元斗杓) 등의 무장을 중용하여 북벌을 위한 군비확충을 본격화하였다. 즉, 1652년 북벌의 선봉부대인 어영청을 대폭 개편 강화하고, 금군(禁軍)을 기병화하는 동시에 1655년에는 모든 금군을 내삼청(內三廳)에 통합하고 600여 명의 군액을 1,000명으로 증액하여 왕권강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남한산성을 근거지로 하는 수어청을 재강화하여 서울 외곽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중앙군인 어영군을 2만, 훈련도감군을 1만으로 증액하고 자 하였으나 재정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한편 1654년 3월에는 지방군의 핵심인 속오군(束伍軍)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조 때 설치되었다가 유명무실화된 영장제도(營將制度)를 강화하는 동시에 1656년에는 남방지대 속오군에 보인(保人)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서울 외곽의 방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원두표를 강화도, 이후원(李厚源)을 안흥, 이시방(李時昉)을 남한산성, 홍명하(洪命夏)를 자연도(紫燕島: 경기도 부천시)로 보내어 성지(城池)를 수보하고 군량을 저장하여 강화도 일대의 수비를 강화하였다. 나선정벌 이후에는 남방은 물론 북방지대에도 나선정벌을 핑계로 산성 등을 수선하는 등 군비의 확충을 적극화하였다.

또한 표류해온 네덜란드인 하멜(Hamel, H.) 등을 훈련도감에 수용하여 조총·화포 등의 신무기를 개량, 수보하고 이에 필요한 화약을 얻기 위하여 염조(焰硝)생산에 극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단히 직접 관무재(觀武才) 등에 참가하여 군사훈련 강화에 노력하였다.

1655년 8월에는 능마아청을 설치하여 무장들로 하여금 강습권과(講習勸果)하도록 하였으며, 이듬해 정월에는 금군의 군복을 협수단의(夾袖短衣)로 바꾸어 행동을 편리하게 하는 등 집념 어린 군비확충에 노력하였으나 재정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때로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효종의 군비확충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국세가 이미 확고하여져 북벌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다만, 군비확충의 성과는 두 차례에 걸친 나선정벌에서만 나타났다.

한편 효종은 두 차례에 걸친 외침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경제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육(金堉)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1652년에는 충청도, 1657년에는 전라도 연해안 각 고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전세(田稅)를 1결(結)당 4두(斗)로 고정화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리고 군비확충에 필요한 동철(銅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전(行錢)의 유통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김육의 강력한 주장으로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 유통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한편 문화면에 있어서도 1653년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법(曆法)을 개정하여 태음력의 옛법에 태양력의 원리를 결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1일간의 시간을 계산하여 제작한 시헌력(時憲曆)을 사용하게 하였다.

1654년 《인조실록》을, 이듬해 《국조보감(國朝寶鑑)》을 편찬 간행하였으며, 공주목사 신숙이 엮은 《농가집성(農家集成)》을 간행하여 농업생산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1656년에는 전후에 흐트러진 윤리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혜왕후(昭惠王后)가 편찬한 《내훈(內訓)》과 김정국(金正國)이 쓴 《경민편(警民編)》을 간행하였다. 이듬해에는 《선조실록》을 다시 《선조수정실록》으로 개편 간행하였다.

효종은 평생을 북벌에 집념하여 군비확충에 전념한 군주였으나 국제정세가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부족하여 때로는 군비보다도 현실적인 경제재건을 주장하는 조신(朝臣)들과 뜻이 맞지 않는 괴리현상이 일어나 북벌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659년 5월 4일 41세를 일기로 창덕궁 대조전에서 죽었다. 선문장무신성현인대왕(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의 존호(尊號)가 올려지고, 묘호(廟號)를 효종이라 하였다. 그해 10월 29일 능호를 영릉(寧陵)이라 하고, 경기도 양주의 건원릉(健元陵) 서쪽에 장사하였으나 뒤에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로 옮겼다.

인선왕후(仁宣王后, 효숙대비)는 조선 17대 왕인 효종의 비로 현종의 어머니이다. 덕수장씨(德水張氏)로 아버지는 우의정 유(維)이며, 어머니는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딸이다.

1630년(인조 8) 봉림대군(鳳林大君)의 부인으로 간택되었다. 병자호란 뒤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이 심양(瀋陽)에 인질로 갈 때 같이 가 8년간 머물렀다. 처음에 풍안부부인(豐安府夫人)으로 책봉되었다가, 1645년 봉림대군이 세자가 되자 세자빈으로 되었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었다. 1662년(현종 2) 효숙(孝肅)의 존호를 받았다. 그녀가 죽은 뒤 시어머니인 인조비 조대비(趙大妃)의 복상 문제를 둘러싸고 예송(禮訟)이 일어나, 기년복(基年服)을 주장하는 송시열(宋時烈)과 대공복(大功服)을 주장하는 윤휴(尹鑄) 간의 대립으로 당쟁이 크게 격화되었다. 많은 한글편지를 남겼으며 특히 5명의 공주에게 보낸 궁체로 씌어진 「언간(諺簡)」이 유명하다. 휘호는 경렬명헌(敬烈明獻)이다.

4. 영릉표석음기

朝鮮國

孝宗大王寧陵

仁宣王后祔下

己亥五月四日甲子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薨其年十月二十九日丙辰葬于楊州健元陵右近岡癸丑十月七日癸卯移葬于驪州英陵東弘濟洞子坐午向之岡越明年甲寅二月二十四日戊午仁宣王后張氏薨以其年六月四日戊戌祔葬在下

5. 영릉지

《孝宗實錄》附錄 孝宗大王寧陵誌文

嗚呼 我大行大王 以聰明睿智之聖 有傾否濟屯之志 臨御十年 克勤克恤 未嘗一日或怠 海隅倉生 方且岐踵延頸 以望功成治定之日 乃以己亥四月二十二日辛亥 有疾不豫 猶愍稼穡之病 露立禱雨 越五月初四日甲子 禮陟于昌德宮之正 寢壽四十一 嗚呼 天乎 眞所謂創創業未半 中道崩殂者 嗚呼 天乎 我殿下攀號莫及 與小大臣 考古諡法 謹上尊號曰 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 廟號孝宗 群臣相與言曰 諡者行之跡 號者功之表 今其庶矣乎 將以十月二十九日丙辰 葬于寧陵 實健元陵之西麓也 我殿下 以臣時烈 自始侍講于初潛 暨末年復侍帷幄 遂以幽宮之誌命臣 臣辭謝不敢不獲命 則遂泣血拜手稽首而獻文曰 嗚呼 天之迫於氣數屈伸 而生大亂 亦生大聖人 以擬其時 將降大任於是人也 亦必窮厄其身 以增益之 故王誕降之夕 彩氣呈瑞 既生九歲 而遭丁卯之難 十七歲而母大妃薨 哭泣悲哀 庭中不忍聞 十八歲而遭丙子之難 入于江華 十九歲而丁丑正月 得朝仁祖於南漢之城下 仍質乎瀋陽 既而西至于蒙古界 南至于山海關 又南至于錦州衛松山堡 見諸將敗降 又東至于鐵嶺衛開元衛 又東北至如奚部 鑿玄冰丈餘 而飲其水 二十六歲 而居北八年 始得東歸 未數月 旋入燕山 見京邑灰燼 二十七歲乙酉 自燕山歸國 前後二十餘年之間 天之憂戚玉成者 靡所不至 遂由次適 而升儲位 由撫監 而履至尊 王心知天意之有在 不敢自暇逸 惟修德立政 日不暇給 其修德曰 學以明其心 行以踐其實也 故在東宮 書無逸豳雅及古昔箴戒之語以自警 嘗問宮僚 漢之文武孰勝 皆曰文帝勝 王曰 武帝不忘平城之憂 武帝勝 及卽位 日三御經筵 嘗曰 予氣質多偏 惟學可以變化 然靜而常敬 默而常信 此最要法 又曰 緊切工夫

無如敬以養心 如是則本源澄澈 人慾退聽矣 然亦須義以方外 然後動靜相資 體用兼該也 敬義之說 雖始於孔子 而舜禹所謂精一者 已是此理 精一之說 雖始於舜禹 而前此聖人 亦必以是相傳矣 故名其閣曰養心 齋曰敬義 又曰 克己須從性偏處下功 予性多在於怒 怒時處事 每不中理 近得一術 事有不可必 待中夜怒弛而處之 頗覺其寡過矣 又曰 慾之潛隱者 甚可畏 予雖自謂不復喜酒 然程子大賢 猶復有喜獵之心 心其可少忽哉 且心術隱微處 最可深察 予每有及民之事 不無使民德我之意 是知無所爲而爲者 眞聖學之要也 此可見王用功之精密也 又曰 禹之勤勞 甚於百戰創業者 然禹絕無私天下之心 此所以爲聖人也 此實深造默契之言 非懸度揣模之可及也 蓋王英睿絕倫 甫成童 講尙書 如璣衡律呂之法 曉解如破竹 至如莽三百 雖老師宿儒 猶病其難通 王一見無復礙滯 自是 於精微肯綮處 不甚思索 而灑然通透 克至于高明之域 實非後世人主所可跂望也 又嘗曰 講學 所以明理 明理 將以躬行 躬行之實 孝悌爲先 堯舜之道 孝悌而已 故承事兩殿 順敬備至 自幼侍側 器物必整理 時新之物 不先入口 兩殿每日 吾家孝子 其在燕藩 思慕不自克 興言必涕泣 及仁祖大漸 割指進血 及喪哭泣之哀 顏色之戚 感動臣隣 至窆 將詣陵臨訣 群臣以毀疾請止 教曰 昨於郊外 瞻望靈輿 歸來殿宇 聞寂更無憑依 今見此啓 予懷之悲 實與天地無窮也 魂殿小祭祀 非疾甚 未嘗不躬行 嘗幸山陵 降陟進止 哭不暫止 喪畢群臣請依例陳賀 固辭不受 嘗講蓼莪詩 悽咽泣下曰 詩本性情 信矣 況予先志未伸 含痛窮天者乎 筵臣以爲 新免於喪 是適然矣 其後語及 未嘗不然 茲可謂終身而慕者歟 繼大妃善病 王奉養調娛 翼翼油油 以所處狹隘 親自視址 以營別殿 曰萬壽曰春暉 嘗上壽其中 禮肅而愛至 物儉而儀備 既罷 仍問國中高年 各賜米肉 以廣推及之意 繼大妃嘗曰 王之誠孝 將無以報矣 與昭顯蒙難于北 孔懷之情益至 或不無蓋底之方圓 而

能以誠意諧之 清人欲以昭顯從戰 王輒請自行 辭氣懇款 清人感而止 昭顯諸子 仁祖朝 坐其母 皆廢置海島 王憐而赦回 後封其子嫁其女而撫愛 與諸公主 絕無纖毫厚薄 謂群臣曰 吾與昭顯 崎嶇異域 冒犯霜雪 左右提挈 未嘗暫離 東還未幾 人事奄忽 每常悼念 今若視其子 異於己子 逝者豈無憾恨 常以春秋 謁諸陵 當幸孝陵 昭顯墓在其傍 王曰 予疇昔之夢 昭顯見予 歡若平生 今又夢予執手悵然 覺來悲懷難狀 遂於拜陵訖 省其墓而歸 愛母弟潛甚至 幼時宿必同衾 後常源源接見 日未夕 不許出 有以危語持潛者 王怒杖殺其人 潛疾 就見之 及聞其革 以約徑出 則已無及矣 王悲痛忒甚 至斂又却桃茢以臨之 庶弟澂瀟 其母與姊 舊已稔惡 與金自點謀逆 有司請斷恩處以法 王以事係繼大妃 只賜其母死 而子女放置于外 不絕衣食 後王念其逢霧露以死 命還之 澂瀟入宮見王 王喜而泣語 潛沒 王益悼其終鮮 泣諭群臣 悉復其官爵 王之尊屬 備 仁祖弟也 玜瑛 宣廟子也 王愛敬之 沒身不衰 其於疏屬 恩禮周至 無有怨恨不滿者 我殿下稍大 王雖甚愛之 然教之必以法度 故絕無奇袂雜進 以害其德性 此王修德之實 自身而行於家者也 其立政曰 任人以誠 而保民以仁也 故始宅宗 首起金 尙憲金集 集山林宿德 尙憲身任大義 嘗拘執在北 姦人以此媒孽之 禍將不測 王應機善處 事以得解 後亦眷向不少怠 巖穴之士 無不禮致 嘗問 宋神宗歎無人材 而不用二程何也 筵臣對曰 程子嘗極陳治道 神宗曰 此堯舜之事 朕何敢當 神宗其志如此 雖欲用之得乎 又嘗論朱子 筵臣曰 朱子生南渡時 志在經濟 蓋欲人君正心克己養民養兵之外 子然無一事以間之也 王曰 宋有程朱而不能用 今不能推行其道 則豈不復爲後人所恨也 又曰 君臣固難相信 而任將尤難 韓信曰 漢王言聽計用 雖死不易 人主苟信用臣子 則臣下寧有欲去者乎 又曰 每念宋高有宗[高宗有]李韓岳 而不能用 蹙處江南 不能進一步 未嘗不悵然太息也 王神采嚴毅 人不敢仰視

而每對群臣 言笑樂易 開心見誠 洞徹無間 故人人咸得以自盡 其言直則賞之 其人可用則獎拔之 不拘資格 雖已死者 褒寵不已 忠賢子孫 特加收錄 儒先祠廟 悉賜扁額 有司恤罄 請削朝廩 不許曰 忠信重祿 所以勸士也 無寧盡損御供也 愛養民生 常如不及 歲惡免入發積 未嘗少靳 數遣御史 廉問其疾苦 歸則輒親見問 有白其死飢之狀 王惻然泣下曰 此不忍聞 食其下咽 卽減常膳 疾疫民死 命齋內藥以救之 守令必引見 敷納以言 因勉勵之 或於恒調擢授右職曰 嘗爲某邑 嘉爾治績 天旱必親禱 禱輒應不移晷 凡民之惡 欲罷置如飢渴 雖力討軍實 而尤弱者免 雖愛惜官爵 而耆艾者與 尤慎祥刑 自點獄起 悉焚其所親交書 每寒暑甚時 必問獄囚 疏出其細犯 嘗使近臣閱囚 有無衣者 命所司備給曰 罪有常服 凍殺則不可 湖民被誣告 逮繫者甚衆 王一見爰辭 卽釋之 亦給衣糧 皆叩頭流涕而去 讀呂刑哀敬之文 喟然興歎 面諭刑官 使之盡心 有失入者 輒坐之不以恕 以故好生之德 浹于民心 然有罪者 一斷於法 不自爲輕重 雖外挾內証者 衆所疑懼 亦殄戮之 無所撓 增損學制 以造俊升 而尙慮闕民無法 命梓三綱行實警民等篇 以頒中外 蓋帝王爲治之道 大本旣立矣 方將修舉廢墜 振起綱維 以挽回世道 以克酬聖念之所欲爲者 而卒未能就 嗚呼 且以文王之德 百年而崩 猶未洽於天下 況形勢之難易 又萬萬於殷周之際者 而天之降年 又未及文王之中身哉 嗚呼 痛哉 昇遐之日 京都士庶 填咽哭踊 深山窮谷 莫不悲號曰 吾其奈何 嗚呼 茲所謂未施哀 而民哀者歟 王諱湊 字靜淵 仁祖子也 母妃韓氏 西平府院君浚謙之女 神皇末年 天下始發亂 本朝方且淪喪 天命已歸仁祖 而王以萬曆己未五月二十二日生焉 昭顯世子 王母兄也 昭顯卒 有子 仁祖以王有聖德 故立之 王妃 故新豐府院君張維女 誕一男 卽我殿下 五公主 洪得箕沈益顯鄭齊賢鄭載崙元夢麟 其駙馬也 一翁主幼 諸公主下嫁 事舅姑 甚執婦道 此見王化之一端也 嗚呼

自三代以後 治不本於學 故道術爲天下裂 惟王遜志來修 以御家邦 故駁
駁乎王道之純 三代以下 惟功利是尚 故多愧於天理民彝 惟王正誼明道
無所計較 故聖志克定 卓然如青天白日 罔日不克 罔日民寡 惟厥心厥事
是既是慎 常有日暮道遠之歎 又歎曰 古語一二臣同 不爲無助 今則小大
敷同 惟目前是圖 誰與我共此者 故時有荊南幄對之賜 其沈機妙算 有非
人人所可窺測者 尤好宋儒書 有以心學說進者 卽授筵臣訂正曰 得無或悖
於程朱否 蓋秉天理明聖學正王法伸大義 以繼春秋大一統之業 以承聖考道
心之傳 而以不負皇天生聖之意者 豈非建天地而不悖 質鬼神而無疑者乎
世無知德者 固不能象成歌詩 疏越薦誠 使人愀然如復見乎盛德之容 然以
經傳所載 模倣而蠡管之 其乃武乃文 祖乎堯 孝弟盡道 宗乎舜 儉勤惡旨
酒 法乎禹 不邇聲色改過不吝 效乎湯 視民如傷卑服卽功 師乎文王 發揚
蹈厲 恐不逮事 象乎武王 自漢以下 則恢廓大度 高祖如之 重厚直溫 光
武同之 信義彰著 昭烈近之 弧矢鐵柱 寤寐豪英 而齋志不伸 惜乎宋孝以
之 此則時勢然也 王在燕 忽見五彩盈室 而神龜出 見昔禹抑洪水 而天乃
以是錫禹 使王志業成就 則將不在禹下矣 奈何天示之兆 而不畀之壽 使
天下萬世 不得卒受其賜歟 孰謂之亂之可治 變之可正 而陽不可終無歟
匪風下泉之終於變風 其意安在 豈所謂天不勝氣數屈伸而然者歟 雖然建
皇極之正 明人理之晦 其正大宏遠之規 日星乎中天 以遺我聖子 以基億
萬年無疆之業 則其與地平天成 萬世永賴者 未嘗不同也 嗚呼 龜真有知
也歟 噫 此可以少慰臣子無窮之痛也歟 臣猥蒙知獎 不卽禱蟻 忍以文字
紀事纂言 乾坤之大 日月之明 固難繪畫 而且恐遭辭之際 華而不實 則罪
有深於華元樂舉 故寧質而不敢溢 以對揚疇昔遠佞之聖德云 [崇政大夫議
政府左參贊臣宋時烈製進]

宋時烈,《宋子大全》卷 181,陵誌 寧陵誌文

遷陵時附識

寧陵下還之翌年庚子 陵上石儀罅隙生焉 我殿下議將改封 旋慮驚動玄宮 只命以石灰逐旋填補 今年癸丑四月 因一宗室上疏 亟命公卿以下以及三司諸臣同往奉審焉 其罅隙細大 皆如宗室言 殿下驚懼駭隕 徧謫前後任事諸臣 因慮雨水或從罅隙中滲漏 遂議遷奉 卜吉于驪州弘濟洞 以九月二十九日乙未 啓櫬宮 十月初四日 廡衛臨塋 初七日癸卯 依禮克襄 去我世宗大王英陵八百九十七步而近 蓋弘濟洞自古稱聖人葬地 今其果協矣 夫幽誌册文 皆因舊貫 陵制一遵英陵儀式 并昭慈儉之德 其萬世永寧 垂佑無疆之慶 可期而無疑矣 嗚呼 我聖考盛德嘉謨 倘能備記 以經聖人之手 則必在清廟生民之列矣 何渠參伍於費秦二誓之間哉 嗚呼 今去上賓之時十有五年矣 臣民之思慕悲痛 如一日不怠 當初啓 自殯殿以至陵所 遠邇含生 彌山滿野 至誠哀號 今聞緬禮之舉 又相與涕洟而言曰 我聖主復臨灤水之朝 嗚呼 是孰使之然哉 天佑聖德 我殿下遜誕神孫名某 丁未正月二十二日 册封爲世子 太係神人之望 噫其休矣 聖考嘗論張 范二人曰 良之背鴻溝約 其忠憤急於復讎 念何暇及他 義理便在其中矣 增也每爲項羽圖帝業 將置義帝於何地 及其義帝弑 而猶從羽不去 是不識天無二日之義也 其罪大矣 而蘇軾顧捨此不論 乃咎其味幾被害 其學謬矣 嗚呼 此亦超越百王之見 而亦豈無微意於其間耶 此前誌所逸 故今并追識焉 一公主錫號淑安 下嫁益平尉洪得箕 生子致祥 二公主錫號淑明 下嫁青平尉沈益顯 生子廷輔 廷協 三公主錫號淑徽 下嫁寅平尉鄭齊賢 生子台一 四公主錫號淑靜 下嫁東平尉鄭載崙 生子仁先及一女 五公主錫號淑敬 下嫁興平尉元夢麟 生一女 淑寧翁主降爲錦平尉朴弼成妻 生一女 我殿下生明善 明惠 明安三公主 長次夭 後十四年癸丑十月日 判中樞府事臣宋時烈撰

《顯宗實錄》卷 22, 顯宗 15 年 6 月 4 日 丁酉 仁宣王后誌文

申時 葬仁宣王后於寧陵 行判中樞府事金壽恒 撰進誌文 其文曰 仁宣王后禮陟之五月 治方中既完 我殿下乃降所述行錄 命臣壽恒 撰進玄宮之誌 臣拜手稽首 受而讀之曰 於乎 至哉 我聖后之德 而聖上之紀之也 誠無間然矣 既不獲辭 則敢就行錄 纂次而敘之 謹按王后 姓張氏 其先日順龍 本中國人 當元時 以宣武將軍鎮邊摠管 從公主東來 仍仕高麗 累官門下贊成事 食采德水縣 子孫仍籍焉 入我朝 有日翽 漢城府判尹 四傳而至 玉 能文章 早擢大魁 承文院判校 贈吏曹參判 於后 爲五代祖 高祖諱任重 掌隸院司議 曾祖諱逸 木川縣監 祖諱雲翼 刑曹判書 亦以魁科早顯 後贈補祚功臣領議政德水府院君 考諱維 右議政新豐府院君 諡文忠公 受知仁祖 策靖社勳 文章德行有大名于世 配曰 永嘉府夫人金氏安東望族 忠臣右議政文忠公諱尙容之女 一時稱門第者 推甲乙焉 以萬曆戊午十二月庚辰 誕后 生而端淑 不妄游戲 六歲 祖母朴夫人 取而鞠之 嘗隨往季父水原府衙 時於暗中 思父母嚙泣 祖母覺而問 輒拭淚對以他辭 不使貽其憂 祖母奇愛之 后有兄 苦面瘡 或言兒矢最効 金夫人陽爲不欲汚手 以弑后意 后即手自傳之 不見厭惡色 文忠公大悅而異之 蓋其至誠自幼然也 崇禎庚午 孝廟爲鳳林大君 仁祖親簡其配 見后周旋應對有則 甚賢之 后遂膺選 辛未秋 嘉禮成 封豐安府夫人 既入闕 夙夜夔慄 孝敬無違 最爲仁烈王后所眷愛 過四年 出閣居邸 秉家綜理 井井然 梱內事無纖鉅 不敢自專 仁烈王后有姊 嫠而窮居 后調掇 曲有恩意 丙子冬寇難入江都 明年正月 敵兵渡江 宮中鼎沸無不號哭蒼黃 后獨從容整暇 言動不少爽 人皆服其有守 及孝廟與昭顯世子 質于瀋陽 后亦隨行 羈危險阻 首尾九年 其所處事 不失常度 兩宮之間 無間言 乙酉始返國 昭顯世子卒 孝廟受仁祖命 陟儲位 冊后爲世子嬪 后益自抑畏 飭躬以禮 事上以誠 得一異味 必

先獻于仁祖 己丑 仁祖賓天 孝廟踐祚 后既正位中壺 陰教益彰 聽內職率
嬪御 和而穆 嚴而惠 庶幾樛木葛覃之化 然小心翼翼 持以柔巽 常曰 婦
而自聖 鮮不害于家國 牝雞之戒 可不慎歟 己亥 孝廟疾惟幾 后籲天請代
逮至不諱 哭擗踰禮 然於送終之事 自大[湖]蚤湔以往 雖微必親 不委之替
御 務盡誠信而後已 未卒哭 只歡糜粥 我殿下泣請進食 則曰 自絕其命
則誠過矣 強飯以救活 亦予所不忍也 我殿下嗣位 尊后爲王大妃 辛丑 進
徽號曰孝肅 當冊寶之上也 后不欲親臨 我殿下至誠固請 [后]亦體孝廟平
昔之教 泣而許之 行禮之日 哀動左右 至賀禮 則竟不受焉 每遇災異 憂
懼形于色 諭我殿下曰 予心猶然 爾可忽諸 所以誠誨者甚切至 后自己丑
大慙過毀致疾 遂因以沈痼 嘗屢幸湖西之溫陽 試湯泉小效 至甲寅二月
疾忽亟 以二十四日戊午 薨于慶德宮會祥殿 春秋五十有七 有司議諡 諡
法 施仁服義曰仁 聖善周聞曰宣 遂上尊諡曰仁宣 又加上徽號曰敬烈明獻
先是 孝廟山陵有故 至癸丑冬 遷于驪州之弘濟洞子坐午向之岡 至是 遵
后治命 以六月初四日 祔葬于其下 以其同原而近也 因稱以寧陵 后資性
貞靜 又襲訓法門 動容出辭 舉可爲儀範 雖疾病燕私之際 必以禮自將 對
子姓亦未嘗有惰慢之色 於私親 雖甚周睦 絕不許曲徑干恩 內外載如也
孝廟於麟坪大君 友愛篤至 后亦待其夫人 一出於誠 事慈懿大妃數十年
慈孝無間 宮闈之內 和氣融洽 自后有疾 不得以時進見 每歎曰 有生何爲
大漸之夕 神氣已昏霧 忽聞大妃來臨 卽驚悟 促進坐席 諄諄告訣 柔聲和
色 雍容若平日 猶以不飾而見 爲恨 遷陵之日 蜃車多憂 輦士顛殞 后聞
之 愀然曰 先王在天之靈 必不安於此矣 及女侍自山陵還 聞知傷人無多
始有和豫色 今茲[六]引之舍輿而舟 蓋亦體后之遺意云 孝廟之昇遐也 雖
窮閭僻壤 如喪考妣 愈久而不忘 及后之薨 民之奔走號慕 亦如之 嗚呼
豈無所由而然哉 后誕有一男五女 我殿下聘領敦寧府事金佑明女爲妃 五

公主 長曰淑安公主 下嫁益平尉洪得箕 次曰淑明公主 下嫁青平尉沈益顯
次曰淑徽公主 下嫁寅平尉鄭齊賢 次曰淑靜公主 下嫁東平尉鄭載崙 次曰
淑敬公主 下嫁興平尉元夢麟 淑靜 淑敬 竝先卒 我殿下誕生一男三女 世
子聘兵曹判書金萬基女爲嬪 女曰明善公主明惠公主明安公主 明善明惠皆
未字而夭 洪得箕一男 沈益顯二男 鄭齊賢一男 鄭載崙一男 元夢麟一女
洪惟我寧考 盛德宏規 駕軼百王 其惕厲奮發 以昭大義於天下者 惟后內
贊之功 是資我聖上仁心仁聞 浹人肌髓 使域內肖翹之類 咸宥於雨露之澤
者 亦惟后慈覆之化 是承博厚之德 尊配坤元 是宜受祿無疆 永享岡陵之
壽 而昊天不弔 遐算遽促 嗚呼痛哉 惟其徽音懿烈之昭在耳目者 託之琬
琰 藏于幽隧 將與塗莘之盛 竝垂於萬禩 猗歟 休哉